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05. 09.(금) 06:00 < 05.09.(금) 석간 > 배포 2025. 05. 08.(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간 자율주행 및 친환경 미래차 발전방안 논의

- 2025 APEC 제41차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제주에서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계기, 제41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이하 AD)가 오는 5월 9일(금)부터 10일(토)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민·관협의체로 AD 및 CD(Chemical Dialogue) 2개

AD는 APEC 역내 회원국 정부와 자동차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공식 민관 협의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협의체는 전동화, 자율주행,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PEC 내 자동차 분야의 대표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AD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칠레 등 16개 회원들이 참석하며, 우리나라가 의장인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로는 자동차산업 시장동향,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과 AI기술, 미래 모빌리티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아키텍처 혁신, 배터리 재활용, 수소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기술,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전환에 대응한 핵심 이슈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기술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회원들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D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환경 속에서 회원들이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 주요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320)
		담당자	사무관	채기천 (044-203-43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5 APEC 제41차 자동차대화(AD) 개요**

□ APEC Automotive Dialogue 개요

○ **(배경)** APEC 회원 정부 및 자동차 업계 등이 참가하여 자동차 산업 현황·정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회의체

* CTI(무역투자위원회) 산하 민·관협의체로 AD 및 CD(Chemical Dialogue) 2개

- '99.4월 제1차 AD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총 40회의 AD 진행

○ **(기대성과)** 회원들 간 전동화, 자율주행, 탄소중립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 AD 추진현황

○ **(일시 및 장소)** 5.8(목)~10(토), 제주ICC 영주홀B

○ **(의장)** 산업부와 자동차협회가 공동의장직 수행

- **정부** :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 **민간**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 **(참가 회원)** 대면한국, 미국, 중국, 일본, 칠레,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비대면캐나다, 멕시코, 브루나이, 홍콩

□ 2025년 SOM2 계기 의제

○ **(주요 의제)** ❶각 회원 자동차산업 시장동향, ❷자동차 가치사슬 및 공급망협력, ❸EV 및 배터리·충전 인프라 등 전동화 생태계, ❹자율주행·커넥티비티·AI 등 미래차 기술개발 정책동향, ❺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조망 등

○ **(관심 의제)** ❶전동화에 의해 촉된되는 차량 플랫폼의 변화, ❷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방안, ❸미래 모빌리티로서의 목적기반자동차(Purpose-Built Vehicle)